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전현진 사무관 강현지	042-481-5953
	2016년 7월 6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7월 5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영업비밀, 뭇이 중헌지도 모르고 !

- 특허청,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 발간 -

최근 기술유출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표준서식 활용가이드」(이하 표준서식 가이드)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사는 핵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었다. 마찬가지로 전직 직원에 의해 기술이 유출된 B사는, 사내 보안관리규정 제정과 비밀유지서약서 징구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유출의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징구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밀 관리를 강화하고, 비밀유지 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사내 보안규정 등을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체적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기업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서식들은 보호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입·퇴사자, 프로젝트 참여자 등 대상별로 고려되어야 하는 특이점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금번에 구축된 영업비밀 표준서식은 관련 판례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업종별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영업비밀 보호 수단을 제공하며, 해설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실무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준서식 가이드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나아가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 설치 뿐 아니라, 영업비밀 관리 서식을 포함한 기업 내 기술보호 현황 점검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www.tradesecret.or.kr, 1666-0521)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보호 서식은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관리뿐 아니라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비밀관리성 입증에 위해 중요한 자료”라며, “표준 서식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술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영업비밀 표준서식 구성

내부 관계용	대상별 비밀유지서약서	입사자, 재직자, 퇴사자, 프로젝트 참여자, 통제구역 출입자, 협력업체, 휴대용 컴퓨터 사용자 등
	경업금지약정서	-
	기타 서식	근로계약서 삽입 조항, 교육이수확인서, 교육참석확인서, 비밀자료·물품 반납 확인서
외부 관계용	비밀유지계약서	-
	비밀자료 제공·수령확인서	-
	기술(노하우)이전계약서	-
	계약유형별 비밀유지조항	공동연구계약, 공동출원계약, 제조위탁 계약, 인수합병계약, 합작투자계약
	분쟁대응 관련 서식	영업비밀 침해예방 통지서, 영업비밀 침해중지 통지서, 합의서
사내 규정	영업비밀 관리 규정	-
	시스템 보안 규정	-